

2010. 12. 9.

12월 과학기술자상 유회준 교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KAI 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유회준 교수(사진)를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12월 수상

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회준 교수는 고성능·저전력 '물체인식 칩'을 개발해, 일반 PC에서도 구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물체인식 알고리즘을 스마트폰 같은 소형 시스템에 적용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유 교수는 물체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인간의 '뇌 구조'를 모사한 인공지능 물체인식 프로세서 칩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칩은 전력소모가 적은 게 특징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